

4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7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9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1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年)들을 나타내라.

15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더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

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21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2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

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29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제 2 장

안식일 제정

1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2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사람 창조 방법

4 ¶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5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6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에덴동산

8 ¶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9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10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2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헬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바로 그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15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여자 창조

18 ¶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19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

시 편

기록자: 다윗, 아삽, 모세 등, 기록 시기: 주전 1450 - 500년경, 성격: 시수신자: 구약 시대 선민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유대인들은 시편을 단순히 '찬양' 혹은 '찬송'으로 불렀다. Psalms는 시편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살모이'에서 유래하여 영어로 정착된 말로서 시를 뜻한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로서 '성경의 중심'으로 불렸고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특히 율법하에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

내용: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 체험 - 흠모(欽慕), 참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중언 등 - 을 담은 책은 없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믿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시편에는 개인들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공동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 책에는 보편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의 단계들과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영적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때 이런 보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모든 체험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으로써 응답하였다. 시편 중 많은 것들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物品) 즉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 긍휼, 진리,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심 등을 노래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며 성경의 중간에 놓인 장이다. 한편 103편 1, 2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놓인 절로서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시편은 150장, 2,461절, 42,68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9편(하나님의 말씀), 핵심 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29:2), 핵심 단어: 찬양하라(150회 이상), 핵심 문구: '주를 찬양하라'(7:17), 시편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영적 교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

제 1 편

1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견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2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통하리로다.

4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6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 2 편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행4:23-31)

1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시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6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7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9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10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라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제 3 편

¶ 다윗이 자기 아들 암살됨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1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 다, 하나이다. 셀라.

3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이다.

4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5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6 수만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시어,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8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제 4 편

¶ 느기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2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3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4 경외심을 품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셀라.

5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6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의 빛을 드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8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바쳐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 주겠느냐?

9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해 보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10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과연 누가 있느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11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맥을 짓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13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14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 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

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제 2 장

부패한 제사장들

1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2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4 그러면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5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의 죄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9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집행 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후의 죄

10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11 ¶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12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군대들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쫓아내어 쫓으시리라.

13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14 ¶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

15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16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17 ¶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제 3 장

다가오시는 메시아

1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2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3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니

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은 시대에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5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품앗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타국인을 외면하여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클을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쓸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왕께서 침례를 받으심
(막1:9-11; 눅3:21-22; 요1:29-34)

1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니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 4 장

왕께서 시험을 받으심
(막1:12-13; 눅4:1-13)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상투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니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6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없더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왕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

(막1:14-15; 눅4:14-15)

12 ¶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저하셨으니

14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17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왕께서 어부들을 부르심

(막1:16-20; 눅5:1-11)

18 ¶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왕께서 큰 무리를 고치심

(막1:35-39; 눅4:40, 6:17-19)

23 ¶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병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므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25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제 5 장

왕의 산상 설교(눅6:20-26)

1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6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17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이다. 하는 말이 *허한* 이 봉인이 있느니라.

20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21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4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26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제 3 장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1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4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6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8 한편 안내와 양떼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10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 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필박을 받을 것이나

13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14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16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복음을 선포하라

1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2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4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6 이제 내가 험물로 드러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8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남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부탁과 경계의 말

9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0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겹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15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부록

1.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	1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8
3. 성경 연대기	30
4. 지도 색인	34
5. MEMO	37

